

사회의 기본적 발전방향은 대중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민주화와 대량화이다.

5월은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날이 있어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표출되는 계절이다. 1974년 5월에도 그랬으리라.. 당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은 5월 어린이날을 잊을 수 없어 어린이도서관운동을 주도하던 김효정 중앙대 교수님의 권두언을 실었다. 김 교수님은 어린이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부족을 걱정하면서 어린이도서관 건립·육성을 주장하고, 어린이도서관사서 양성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어린이도서관사서를 '어린이 문화환경정비사'로 칭한 것이 이채롭다. 당시를 되짚어보면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문화환경 정비의 핵심적 과제였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어린이도서관의 부족과 부실, 그리고 어린이전문사서 양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2002년부터 민간 텔레비전방송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어린이도서관 문제가 갑작스럽게 사회적 화두가 되었고, 그 결과로 2003년부터 어린이도서관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도 어린이날이었던 5월 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기적의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청주시도 곧 문을 연다.

도서관계와 공공영역에서 어린이도서관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많은 개인과 단체가 작은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 공백을 메꾸어 왔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적지 않겠지



만, 역사는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문제는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우리가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1974년 5월은 우리 도서관계가 국제 도서관계에 부각된 때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동경에서 열린 당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이사회에서 1976년에 개최될 제42차 연맹 총회를 서울에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개최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976년 총회는 이런 저런 이유로 worldwide seminar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버렸다. 다른 지면을 통해서라도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막을 되짚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1974년 5월 당시에는 2년 후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도서관계 국제회의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으로 크게 흥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 직전인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IFLA 사무총장인 마가리트 위스트룸(Margreet Wijinstroom) 여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총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다시 30년이 지난 현재 2006년 서울에서의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점은 새삼스럽다.

《도서관》은 4월호에서 사서직의 재교육 문제를 다루었는데, 5월에는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특집을 꾸렸다. '사서직의 전문성과 제도의 확립'이란 주제의 글을 쓴 이택준 씨는 사서직이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도서관

원의 양성제도의 빈곤을 주요한 이유로 들면서 오늘날(1974년 당시)에는 어느 것이 원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악순환을 단절하는 하나의 길로 구체적으로 고급 사서양성을 위하여 대학원과정의 석사, 박사학위 개설(1974년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신설됨)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정보의 처리 등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현직사서의 재교육기관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있는 지 3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대학에서 매년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연중 많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계 자체적으로 각종 협의회, 연구회 등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재교육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나 사회적 인정의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택준 씨는 그 원인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을 글의 끝부분에 적어 두었다. "사회의 기본적 발전 방향은 대중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민주화와 대량화이다. 이 동향에 따르지 않는(않는) 사회적 시설은 그 기능을 다른 것으로 대신케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서관도 오늘 이 두가지의 요청을 전제로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시련을 감내하고 그 요청을 해결하는 것 만이 새로운 이론과 기술로서 무장한 사서의 책무가 있다고 믿는다." 물론 30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는 했겠지만, 도서관이 대중과 함께 해야 하고, 그래야만 사서직

이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은 그대로라고 생각된다. 다만 시대에 따라 대중화의 방식은 다를 것이다.

그것은 당대 사서직들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할 몫이다. 그 과정에서 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전문직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조직적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도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는 협회의 지구협의회·부회·협의회의 활동현황과 계획을 짚어보고, 각 조직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는 특집을 게재하였다. 전체적으로 당시에는 그런 조직활동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수나 사서의 수가 지금과 비교할 때 매우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들은 조직활동에 있어 헌신적인 참여와 정신력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당시에는 그러한 강인한 정신력으로 어려운 조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1974년 국가의 보조금마저 중단된 때에 도서관협회를 이끌어 온 선배 사서들이 있어 오늘날 우리 도서관계가 있다고 할 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고민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전문단체를 유지하던 그 시점에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수준은 어디쯤일까? 궁금하다.

5월 18일부터 6월 초까지 당시 5개 대학 중 경북대를 제외한 서울의 4개 대학(연대, 이대, 성대,


중대) 학과장이 회합을 가지고 도서관학과와 명칭을 문헌정보학과로 변경하기로 하고 각 대학총장 명의로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학과 명칭 변경 문제는 1960년대말부터 제기된 문제로 1970년대 초부터 도서관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굳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선진국 대학에서도 학과명과 교육과정을 대폭 수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고, 그러한 학과 명칭변경이 서고의 기능을 크게 못 벗은 도서관에 대한 발전적 변혁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도서관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1974년 5월 이후에도 오랜 진통 끝에 1980년대 중반부터 개별 대학에서 명칭을 변경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들어와서 대부분의 대학이 문헌정보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학회의 명칭도 바뀌었다. 명칭은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쯤은 학과명칭이 목적인 바를 제대로 달성하였는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당시 학과 명칭 뿐 아니라 사서의 명칭도 문헌사 등으로 고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교환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서의 명칭은 사서 그대로이다. 과연 정말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도서관계와 출판계 인사들 40여명이 모여 ‘양서출판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고 한다. 도서관계에서는 김두홍 당시 협회 전무이사(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소장)와 이

철규 국회도서관사서장, 장일세 협회 전문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 도서실장) 등이 참여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도서관, 외서번역, 대학출판 등 출판계의 외곽부분을 점검함으로써 양서출판의 여건조성 문제를 다루었는데, 당시 한만년 출협회장은 “경제개발과 수출제일주의의 대원칙 때문에 소외 망각된”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도서관발전에 가장 큰 책임을 진 정부가 사회 간접자본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미약함을 상기시키면서 정보의 도서관정책 혁신을 요구하고 도서관에 대해서도 도서자료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김두홍 전무이사는 이에 대해서 학교 도서관설치에 대한 권장사항을 필수사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도협월보》가 전하고 있다. 사실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유지되고 상호 발전의 동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지난 세월 생각했던 것만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오지는 못한 것 같다. 30년 전 이 심포지엄의 의미와 열기를 지금 되살릴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 도서관계도 어느 정도 성장해 왔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출판부문의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회가 매년 출협과 함께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세미나를 가지고, 부스를 개설하고 있는 일이나 책임은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한국출판인회의가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책임은가족 캠페인을 통한 국민독서 진흥 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단편적인 소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5월 3일에는 제18차 전국국립대학도서관장 및 사서장 회의가 있었다. 강릉대도서관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는 국립대학 도서관이 당면한 도서관직제 확립 문제, 도서비 증액문제, 학술지 결본 처리에 따른 조치 문제, 각 대학자료 교환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국고도서관비 인상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3월 12일부터 50일 일정으로 진행된 준사서자격취득 강습회가 5월 9일(《도협월보》에는 4일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나, 《도서관》은 9일 종료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종료되어 모두 73명의 각급 도서관 직원이 이수하여 준사서자격을 얻었다. 이들 명단은 《도서관》의 ‘도서관소식’란에 게재되어 있다. 5월 5일에는 영락교회가 창립 25주년을 기념해서 한경직목사 기념도서관을 설립하여 개관했다고 한다. 5월 2일에는 공황중학교 도서관이 신설개관식을 가졌다는 소식도 있다. 사서교사(이종원)도 있었다. 5월 25일에는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모여 동문사서교사회를 결성했다고 한다. 이 모임은 친목도모와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월 1회 정기회를 가질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호에 3월 4일 협회사무국에서 북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쓴 적이 있다. 아직 그 성명서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배경이 된 사건은 2월 15일 서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 1척이 격침되고 1척은 납북된 일이라는 것을 당시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글 :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l.net]